

LegalTimes

VOL. 58
May 2013

www.legaltimes.co.kr

세종굴기 준비하는
강신섭 대표변호사

**‘열린 경영’으로
‘열린 세종’ 만든다**



금융 전문 정우영 변호사의 긴급진단

인터뷰 서울대 로스쿨 수석졸업 임미경씨

동남아에 성공신화 쓰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ISSN 1976-488X 정가 9,000원

(주)리걸타임즈



세종굴기 준비하는 강신섭 경영전담 대표

“섬기는 자세로 열린 경영 구현할 터”

비창립멤버 첫 대표...실질적 세대교체 주목
사람, 업무, 고객 다양화로 세종 재도약 시동

로펌마다 대표변호사를 새로 뽑는 등 경쟁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년 전 서울 중구 퇴계로의 스테이트타워로 사무실을 옮겨 '남산시대'를 연 법무법인 세종이 특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은 올 들어 중견 로펌의 대표를 영입한 데 이어 최근 강신섭 변호사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선출, 또 한 번 뉴스를 탔다. 강 대표는 과연 어떤 내용의 '남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까. 강 대표를 만나 설립 30년을 넘긴 세종의 새 구상을 들어보았다.

“대표가 되어 따져 보았더니 올해가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조에 입문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예요. 세종도 2011년 말 설립 30주년을 맞았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전담 대표

강 대표는 의욕에 차 있었다. 그는 특히 세종의 창립멤버가 아니면서 경영을 책임지게 된 첫 대표여서 세종 안팎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의 설립자인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물론 직전 6년간 경영을 전담한 김두식 전 대표만 해도 세종이 출발할 때부터 고락을 같이한 세종의 산증인과 같은 변호사다.

이에 비해 강 대표는 2001년 세종에 합류한 신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출발한 그는 1998년 법복을 벗고 당시 송무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열린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이어 3년 뒤 열린합동이 세종과 합치면서 세종의 식구가 되었다.

그러나 79명에 이르는 세종의 파트너들은 세종 13년째인 그에게 경영을 맡겼다. 세종에서의 변호사생활로

치면 강 대표보다 더 오래된 변호사가 적지 않지만 비창립세대의 첫 대표는 그의 차지가 되었다. 세종의 경영전담 대표는 파트너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강 대표도 파트너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 경영전담 대표가 되었다.

파트너 과반수 신임

“세종의 변호사 층이 두터워졌어요. 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세종 창립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경영능력이나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고 봐야겠죠.”

강 대표는 이어 “창업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선배들로부터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 단계 더 높은 법률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열린 경영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6년 전 김두식 대표가 경영전담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창업이념 바탕으로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법률문화 정립 열린 경영 펼쳐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외부인재의 영입에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강 대표는 특히 인력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고며 기업체에서 직접 법무업무를 수행한 사내변호사 출신의 영입을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기업자문 변호사와 판, 검사로 있다가 로펌에 합류한 재조 출신의 송무 전문가들이 로펌의 전통적 인적 기반이라면

이제는 로펌의 법률서비스 제공대상인 기업체에서 활동해 온 사내변호사에게 지 범위를 넓혀 다양한 인재의 교집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같이 일해 보면, 기업의 속성을 잘 아는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사회엔 민이 관보다 더 발달한 분야

“우리가 가진 것은 종이, 펜, 창의성 법률시장은 사람과 창의성의 경쟁”

업계에선 세종의 어소시엣(associate) 1호 변호사가 대표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은 이번엔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대표는 리더십의 교체에 어떤 그릇에 담아 세종의 발전을 이끌려고 할까.

‘확실한 세대교체’ 해석

그가 다시 한 번 ‘열린 경영’을 화두에 올렸다.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경영대표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 외부인재에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업무분야, 클라이언트 기반을 다양화하겠다”며, 열린 경영의 대외정책에 대한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사람, 업무, 고객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상인데, 그중에서도 그는 인재영입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결국 사람이지요. 구성원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



법무법인 세종의 새 사옥인 스테이트타워 남산. 2021년 3월 이곳으로 옮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옮김을 계기로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다.

가 많은데 법률도 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세종은 실제로 1년 전 4년간 동양 그룹의 법무실장으로 활동한 판사 경력의 유성훈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올 초 한화그룹에서 경영기획 실 사장 겸 법무실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의 채정석 변호사를 영입했다. 채 변호사는 증권 로펌 에이펙스의 대표로 활동한 중량급 변호사로 그의 세종 합류가 연초 화제가 됐다.

올 초 채정석 변호사 합류

물론 사내변호사 외에도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변호사라면 더욱 관심을 갖고 공격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강 대표의 생각이다. 세종에선 이미 경력 있는 외국변호사와 전문성을 갖춘 비변호사 고문 등의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합류하기로 해 세종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 형사분야가 또 한 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변호사 300명 포진

4월 현재 세종의 전체 변호사는 외국변호사 40여명을 포함해 약 300명. 한국의 메이저 로펌으로선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규모로, 강 대표의 인재영입 노력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지는 의미도 물론 들어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인력 확보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면이 없지 않았다”며, “업무분야별로 신입변호사

섬김의 리더십 존중하는 강신섭 대표 아랫사람 잘 챙기고, 소통 잘 해 파생상품 소송 등 금융분쟁 해결 전문

지난 3월 말 세종의 경영전담 대표로 취임한 강신섭 변호사는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하고 따뜻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웃집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수수한 외모처럼 소탈하고 소통을 잘 한다고 한다. 그가 좋아하는 이니셜 ‘KSS’의 의미는 ‘Kind Serving Servant’. ‘고객과 구성원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이란 뜻으로, 카톨릭 신자인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공이산으로 법조 30년

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을 좌우명처럼 늘 마음에 새긴다고 했다. 그는 이런 한결같은 자세로 법조 30년을 거쳐 세종의 경영전담 대표가 되었으며, 같은 마음으로 세종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공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세종에서의 전문 분야는 증권 및 파생상품관련 소송 등 금융분쟁 사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도 상사를 포함하는 민사조에서 활약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 JP Morgan 대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송,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환매대금 소송을 수행했으며, 개발신탁에서의 신탁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최초의 판례를 만들기도 했다.

대표변호사 9명

세종은 경영전담 대표인 강 대표와 함께 김두식, 김성근, 김용담, 명동성, 송웅순, 허창복, 윤재윤, 임영철 대표 등 모두 9명의 대표변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다.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후배들이 일손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솔직한 사정을 애기했다.

그러나 강 대표가 수직 규모만 따져 인재영입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건 것은 아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세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갈파했듯이 우수 인재의 영입은 로펌의 발전, 세종의 발전을 위한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가 로펌에 사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로펌은 자본을 배경으로 한 금융산업도 아니고, 공장과 기계를 생산수단으로 삼는 제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종이와 펜', 그리고 종이와 펜을 움직이

는 사람들의 '창의성'입니다."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아

그는 상당한 규모로 발전한 한국 법률시장을 '사람과 창의성의 경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명예와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또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말처럼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합당한 기회를 찾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요컨대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 화합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열린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이해됐다.

열린 경영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업무분야의 다양화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고객 다변화. 이미 수십 개로 분화된 업무분야를

가동하고 있는 일류 로펌 세종의 실적을 본격적으로 신장시키지는 구상으로, 그는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밀그림을 그려 놓고 있었다.

금융분야 위축

강 대표는 앞으로 세종이 중점 육성할 분야로 조세와 IP(지적재산권), 노동의 세 분야를 제시했다. 모두 현대 기업활동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분야로, 세종 입장에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강 대표는 "세종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증권·금융, M&A, 송무분야 등의 경우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이 더딘 감이 없지 않다"며, "예컨대 금융분야의 경우 여러 로펌에서 세계경기가 경색되며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조세, IP, 노동분야는 어느 로펌이나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강 대표는 "노동분야의 경우 변호사가 단체협약 체결 때나 파업현장에 더 나가서 자문해야 할 만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타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 증권 · 금융, M&A, 시장대응 더딘
조세, IP, 노동분야 많은 성장 예상 ”



하고 있다”고 거듭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갈수록 특허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IP 분야의 경우 단순한 팀이 아니라 IP그룹으로 확대 발전시켜 세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물론 세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조세, IP, 노동팀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대리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문용호 변호사와 박교선, 임보경 변호사 등이 포진한 IP팀의 경우 OLED 영업비밀침해를 놓고 맞붙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간의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는 등 주요 IP사건에서 상당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영업비밀침해



“경제민주화팀, 통상임금 전담팀 발족
기동팀 편성해 그때그때 전문가 투입”

강신섭 변호사는 누구...

-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제23회 시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열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사법연수원 민사법 외래교수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세종 경영전담 대표

형사사건에서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며,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분쟁, 골다공증치료제 특허소송 등에서도 전무승소 또는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이름을 날렸다.

또 조세와 노동 분야도 IP 못지않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세청 출신의 실무가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여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문가를 더 투입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강 대표의 복안. 강 대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통상임금소송 빠르게 증가

세종은 강 대표 취임 이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관련, 경제민주화팀을 발족하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2012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소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 통상임금 전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 기초체력 다지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

팀을 출범시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종의 기동팀을 편성해 그때그때 변호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는 전략인데, 이 또한 강 대표의 장단기 전략에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강 대표는 점차 시장개방의 단계가 성숙되어 가는 영

해외 로펌과 제휴 검토

한마디로 강 대표가 선도하는 세종의 남산 프로젝트가 인제영업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구체화되고 있는 셈인데, 강 대표는 세종굴기(世宗掘起)

라는 표현을 썼다. ‘떨치고 일어서 기업법무의 최고 강자가 되자’는 주문으로, 세종의 제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지는 것이다.

강 대표는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파트너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소개하고,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그가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 그는 “권위의식, 매너리즘을 떨쳐 버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섬김의 자세를 주문했다.

“후배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인품이라는 겁니다. 선민의식, 권위의식을 버려야지요.”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강 대표의 열린 경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다른 로펌들도 비상한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다. ■

김진원 기자

세종 경제민주화 전담팀 발족

일감 몰아준 법인도 과징금 등 주의해야 내부거래,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될 것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경제민주화 전담팀을 발족했다. 사안의 성격상 조세, 공정거래, 회사법, 형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 변호사들의 의견. 특히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해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김현진 변호사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내부거래비중이 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또 일감을 받는 수혜법인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준 법인 역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회사법상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 규정’, 형사상 업무상 배임 등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다.

징벌적 배상범위 확대 추진

특히 내부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 완화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가 조언했다. 그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내부거래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강화될 것이고 그 제재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은 조세팀, 공정거래팀 등의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